강추위·대설 이겨낸 이웃 사랑 '활활'

●광주 봉사단체 '수호천사' 연탄 나눔 가보니

연탄 1천800장 서구 마륵동 일대 5가구 전달

직접 수요처 발굴·구입·나눔…지역사회 귀감

광주 봉사단체 '수호천사'는 18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마륵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5세대를 방문해 연탄 1천800장을 전달했다.

"추운 날 이렇게 큰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마우이."

대설과 한파 속에서도 이웃 사랑 실천을 주저하지 않은 단체가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18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마륵동 일대에는 광주 직장인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봉사회 '수호천사' 단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영하를 밑도는 날씨였지만, 이들은 연탄을 나르기 위해 기꺼이 두터운 외투를 벗고 얇은 우비와 목장갑을 손에 꼈다.

이날 수호천사의 첫 행선지는 서구 마륵동 457-2번지. 이곳에서 단원 20여명은 대문에서부터 연탄을 보관할 곳까지 긴 줄을 서며 연탄 한 장 한 장을 손수 날랐다. 강추위에 입김이 눈썹에 서려 얼 정도였지만 연탄 배달 속도가 늦어지는 일은 없었다. 꽁꽁 얼어붙은 연탄도 단원들의 손을 거치며 온기가 더해졌다.

이윽고 연탄이 창고 천장 위까지 수북이 쌓이자 집주인 어르신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맴돌았다.

어르신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했는데 쌓인 연탄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눈바람을 뚫고 봉사하러 오신 분들 모두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단원들은 어르신들이 건넨 따뜻한 모과차를 마시며 잠시 몸을 녹이고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연탄을 나를 때마다 단원들이 낀 목장갑과 우의는 까맣게 물들어갔지만, 단원들 중 누구 하나도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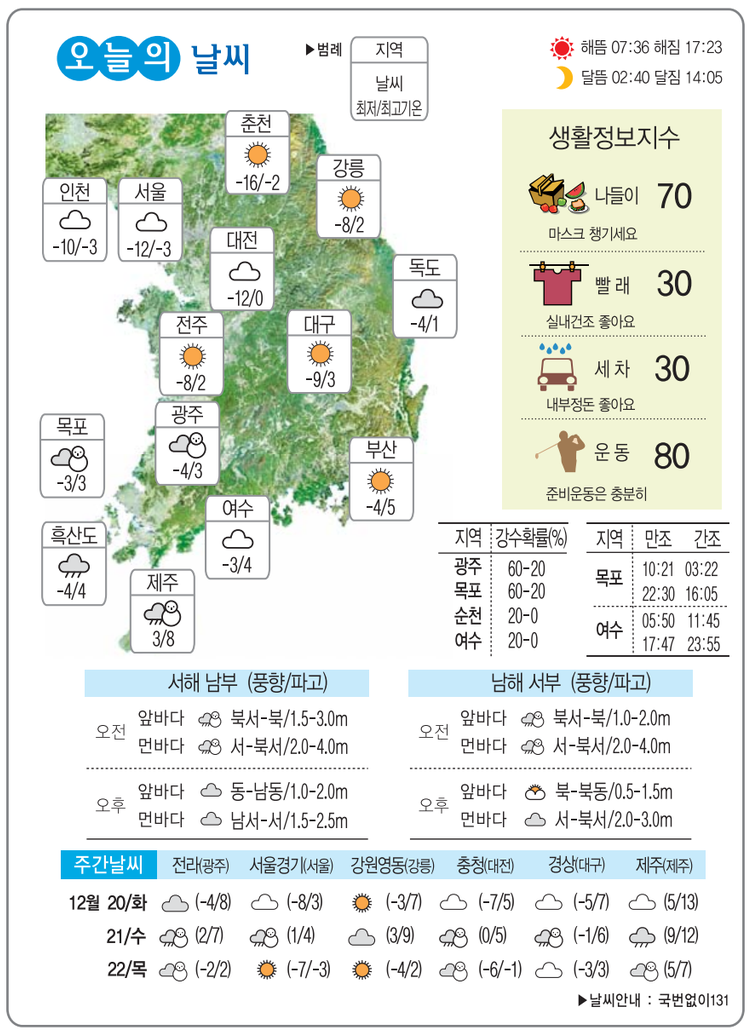
대부분 직장인과 학생인 이들에게 이날은 무엇보다 소중한 '휴일'이었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발걸음 한 단원들의 따뜻한 정(情)은 한파조차 이겨냈다.

이날 봉사는 단원들이 스스로 연탄 수요처를 발굴했고 구매·전달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이번 연탄 나눔을 위해 수호천사는 전주 연탄은행에 연락을 취해 연탄이 필요한 곳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회원들의 참가비와 주변 지인의 후원금을 통해 연탄 1천800장을 구매했고 이날 서구 마륵동 일대 5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봉사에 참가한 권승 씨는 "후원을 통한 봉사에 그치지 않고 몸을 직접 움직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번 연탄 나눔에 참가하게 됐다"며 "이날 전달된 연탄을 통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셨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김동원 수호천사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활동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개하고 있는 반찬 나눔 등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직장인과 대학생 등 젊은 청년과 장년들로 구성된 수호천사는 현재 1천1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가운데 보이지 않은 곳에서 지역사회 곳곳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제2회 빛고을 학교자치 포럼 개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고을 학교자치, 함께 꾸는 꿈'을 주제로 '제2회 빛고을 학교자치 포럼'을 개최했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는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각자가 실천해 온 학교자치 경험을 나누고 모두가 꿈꾸는 학교자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광주동산초등학교 김은희 선생님의 발제를 듣고 모두가 참여하는 원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직 교사들이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원탁토론은 ▲학교자치 활동을 하면서 내 삶에 생긴 변화 ▲실천 사례와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 방안 찾기 등으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임채만 기자

한파 녹이는 캐럴송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주최로 버스킹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첼로포유 단원들이 캐럴송을 연주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진도소방서 개청…전남 20번째

전남소방본부는 민속문화 예술특구 보배섬 진도에 진도소방서를 준공하고 지난 16일 개청식을 개최해 고품질 소방안전 서비스로 주민 안전을 책임질 것을 다짐했다.

개청식엔 김영록 전남지사, 윤재갑 국회의원,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 김희수 진도군수, 이동현 전남도의원, 장영우 진도군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

전남에 20번째로 개청한 진도소방서는 2021년 7월 착공해 총사업비 70억여원을 들여 7천385㎡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3과, 2안전센터, 1구조대, 4지역대로 편성·운영한다. 소방인력 147명, 소방차량 29대의 소방력이 진도의용소방대와 함께 진도의 안전을 책임진다.

그동안 진도지역을 전담하는 소방서가 없어 해남소방서 소속 진도119안전센터에서 재난대응 및 소방행정을 관할했다.

이번 개청식에서 진도소방서는 1개 읍, 6개 면 3만66명의 주민과 동행하며 고품질의 소방안전 서비스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을 다짐했다.

김광선 진도소방서장은 "소방서 개청에 힘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진도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월곡고려인문화관, 이색 공연형 전시 개최

22일 '박물관이 살아 있다' 주제

광주 고려인마을의 월곡고려인문화관이 '박물관이 살아 있다'라는 주제로 이색 공연형 전시를 선보인다.

18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이번 공연형 전시는 고려인문화관에서 올해 8월부터 개최한 홍범도장군 특별전과, 4월부터 전시 중인 고려극장 창립 90주년 기획전, 한 야꼬브 작곡가 특별전의 의미를 관객들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공유하자는 뜻으로 마련됐다.

전시는 오는 22일 오전 11시와 2시에 두 차례 나눠 개최된다.

전시 당일 1층 상설전시실에서는 홍범도 장군으로 분장한 배우가 관객들을 맞이하며 장군의 항일무장투쟁 과정과 전시물에 담긴 사연을 담아 공연한다. 2층에서는 고려극장 연극 '춘향전'에서 월매 역을 맡았던 최봉도, 작년에 작고한 한 야꼬브 작곡가의 모습으로 분장한 배우가 역시 관객들을 맞이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연장근로 개편땐 주 90.5시간 노동 가능"

직장갑질119, 연구회 권고 지적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 권고대로 이뤄질 경우 주당 90시간 넘는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도 가능해진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연구회 권고안대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1주 최대 90.5시간까지 적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직장갑질119는 "1일 차에 21.5시간 일하고, 2-7일 차에 매일 11.5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1주 최대 90.5시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